

2003 학년도 10 월 고 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1

공 통

제 1 교시

언어영역 언어영역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콜 금리
(만기 1 일)

언어영역

II. 본론
1. 약물 남용의 원인

2. 남용 약물의 종류
-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항정신성 의약품 등
3. 약물 남용의 결과
-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자료 1] [자료 2]



제목 : 청소년의 약물 남용
I. 서론 :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증가

언어영역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어느 나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넉스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백석, 고향 -

(나)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 르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 - 르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 - 르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 르 날니리.

- 한하운, 보리피리 -

(다) 눈을 감으면

어린 때 선생님이 걸어 오신다.
 회초리를 드시고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상 추억한다.
 -옛날에 옛날에-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원 동심의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 오후.

- 이한직, 낙타 -

(가) 나는 북관(◆)에 혼자 앉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언어영역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체나 액체, 기체에 관한 연구는 물리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알갱이 입자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물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진 못했다. 최근 들어 알갱이가 고체나 액체에서는 볼 수 없는 풍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알갱이 역학이 물리학 분야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퍼 박 박사는 한 줌의 모래가 만들어 내는 패턴 속에서 '스스로 짜여진 고비성'이라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바닥을 깨끗이 한 후 모래를 일정한 속도로 조금씩 쏟아 부으면, 모래들은 자신이 처음 떨어진 곳에 그대로 멈춰 조금씩 쌓이면서 산 모양의 작은 모래더미를 만든다. 시간이 흘러 모래더미가 어느 정도 경사를 이루게 되면 모래 알갱이들은 경사면을 타고 조금씩 흘러내리게 된다. 일정한 속도로 모래를 계속 부어주면 쏟아지는 모래와 흘러내리는 모래의 양이 평균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모래더미가 일정한 각도의 더미를 이루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각도를 멈춤각이라 부른다. 흥미로운 것은 멈춤각이 모래더미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래의 특성에 따라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며, 모래를 아무리 더 부어도 모래더미는 스스로 일정한 각도의 모래더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모래더미의 각도가 멈춤각보다 작으면 모래가 계속 쌓이고, 멈춤각보다 크면 옆으로 계속 흘러내려서 일정한 각도의 모래더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를 고비상태라고 부른다.

시카고 대학의 하인리히 재거 교수와 그 동료들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모래더미의 경사면을 촬영한 결과, 모래더미 속의 알갱이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래를 계속 쏟아 부으면 모래더미 경사면의 얇은 위층은 마치 액체처럼 흘러내리고 안쪽은 고체처럼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래시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즉, 모래시계가 위에서 누르는 모래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흐름을 만드는 이유를 재거 교수의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래시계의 경우 유리면에 닿은 경사 부분의 모래는 액체처럼 미끌어져 내려가지만 위에서 누르는 모래는 고체처럼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모래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모래에 '물'이 첨가되는 경우, 모래의 성질은 어떻게 바뀔까?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혼베이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수분을 조금씩 첨가할 경우, 모래더미의 멈춤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해 보았다. ㉡그들의 실험에 따르면, 아주 적은 양의 수분이 첨가되지만 해도 모래더미의 멈춤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알갱이들은 서로 응집하게 된다. 미세한 수분이 모래 알갱이들을 서로 고정시켜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알갱이들의 운동은 모래더미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알갱이들의 운동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래 알갱이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알갱이들이 것처럼 풍부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어영역

공 통 6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하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쌍계사로 보내고 장날만 집에 오게 한다.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나타난다. 성기가 계연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자 옥화는 장차 둘을 결혼시켜 역마살을 극복하고 성기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러나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귀에 난 사마귀를 발견한다.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던 중,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에서 사실로 밝혀진다. 계연과 성기의 사랑은 좌절되고 계연은 떠나려 한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처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s?)도 다 지나, 청명(??)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 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뻔히 되려다나 보는 드키 재줄 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에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뺨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 "그럼 어쩔라냐? 너 졸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쪽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또 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 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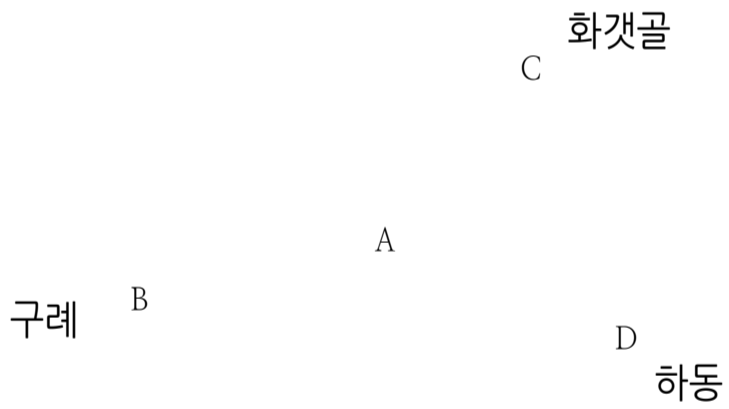
하직을 남기고 채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2점



언어영역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를 복잡성 과학의 맥락에서 파악한 대표적 인물은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 브라이언 아서(Brian W. Arthur) 교수이다. 그는 경제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복잡계로 보았다. 이것은 신고전학과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른 발상의 경제관이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 경제는 안정과 균형을 이루며,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또한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 합리적인 소비자들에 의해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①수확체감의 법칙이란 두 번째 먹은 사탕은 첫 번째 먹은 사탕보다 덜 달고, 비용을 두 배 쓴다고 해도 수확은 두 배에 미치지 못하며,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늘어나는 수익성은 투자량에 못 미친다'는 이론이다. 그렇게 되면, 사탕에 싫증이 난 사람들은 사탕을 덜 먹게 될 것이고, 농부는 비료를 적당한 양 이상은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어떤 회사나 상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는 늘 다양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①수확체증의 법칙이란 첫 번째 사탕을 먹은 사람이 계속 그 사탕만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초기의 작은 차이가 대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디오 녹화 재생 방식에는 VHS 방식과 베타 방식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베타 방식이 VHS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VHS 방식이 비디오 시장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다. 그 이유는 VHS 방식의 비디오 상점들이 온 종게도 시장을 약간 더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술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비디오 상점들은 모든 비디오에 대해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해 쌓아 놓는 것을 싫어했고, 소비자들은 새로 구입할 비디오가 나중에 사라져 버릴까봐 걱정했다. 사람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선두 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VHS 방식과 베타 방식의 점유율 차이는 아주 작았으나, ㉠선점 효과로 인해 결국 VHS 방식이 시장을 점령하게 됐고 베타 방식은 비디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아서 교수와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환원주의'란 최소 구성단위의 성질을 이해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질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모래알처럼 독립적인 개인의 경제 행위를 단순히 합하면 한 사회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서 교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수확체감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두 법칙은 병존하며 상호 보완적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식량 산업이나 중화학 산업처럼 안정되고 변화가 느린 대량 생산 체제를 지배하는 반면에, 수확체증의 법칙은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거머쥐는 정보 산업에서 작동된다. 문제는 경제가 물질의 힘에서 정신의 힘으로, 자원 위주에서 지식 중심으로 서서히 바뀔 때 따라 경제의 작동 원리도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영역

(가)

싱싱하게 자라는 안마당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나는 내 방 앞에 있는 병든 해바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서재 앞마당은 석 자도 못 되는 넓이에다가, 6 척이 넘는 벽돌담이 남쪽을 가리어, 꽃을 심어도 안 되고 나무를 심어도 안 되는 곳인데, 5월 달에 안마당에서 화초를 솥아 버리다가 그 중 키도 잎사귀도 제일 큰 해바라기 한 그루를 아깝다고 아이들이 옮겨다 심은 것이다.

별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는 담 밑에서 해바라기가 될 리 없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아이들이 하는 일이기에 내버려 두었더니, 예상한 대로 이놈은 발육이 시원치 않았다. 해 잘 드는 안마당 해바라기는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나서 밀둥 직경(? S)은 벌써 한 치가 실하고 키는 내 키가 넘으며, 상수리에는 꽃봉오리를 달고 바람이 불면 쟁반같이 큰 잎사귀를 자랑스레 너울거리게끔 되었는데, 내 방 앞 해바라기는 옮겨 심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자라기는커녕 도리어 더 초라해만 지는 것이다. 줄거리는 언제까지나 새끼손가락 같고, 잎은 송편 크기만밖에 안 한다. 그럴 지경이면 키도 차라리 안 컸으면 좋겠는데, 키만은 나이 값을 해 약간 자랐으니 도리어 탈이다. 워낙 가느다란데 키만은 자가웃 가량이나 크고 보니 바람기가 없어도 제풀에 쓰러질 듯 ㉠ 하는 품이 위태롭기만 하다.

환경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같은 종자에서 나왔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란 해바라기건만, 햇볕을 받고 못 받는 차이 때문에 안마당 해바라기와 내 방 앞 해바라기는 이렇게 아주 종자가 다른 것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만 것이다.

이 사실만 해도 사람의 감회를 자아내기에 족한데, 이 병든 해바라기한테는 드디어 한층 잔학한 시련이 닥쳐왔다. 저번,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던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이 발육부전(????)의 해바라기는 무참하게도 담 밑 땅바닥에 넘어져 버린 것이었다. 보기 싫었다. 감정도 사고(? ㄱ)도 없는 식물이건만, 나에게서는 그것이 생존 경쟁에 패배해 넘어진 인생의

언어영역

패자(??) 같이 보였다. 눈물을 흘리고 운명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그런 운명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의 손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장 뽑아버리기도 애처롭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었더니 다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꽃 필 희망은커녕 더 자랄 희망조차 없는 해바라기는 줄기와 잎이 흙에 묻힌 채, 그래도 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온몸을 쳐들 힘은 없기 때문에 맨 앞순만을 철사를 꼬부리듯 꼬부려 쳐드는 것이다. 햇빛 비치는 밝은 쪽을 향해 단 한 치라도 그곳으로 가까워지려고…….

생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해바라기에 무슨 목적이 있길래 그토록 좀더 살려고, 좀더 낮게 살려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애를 쓰는 것인가. 나는 이 병든 해바라기의 악착같이 살려는 의지가 무서워 지금은 선뜻 뽑아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 유진오, 해바라기 -

(나)

온갖 벌레들도, 부지런한 꿀벌들과 매미들도 다 제 집 속으로 들어가고, 몇 마리 산새들만이 나즈막하게 울고 있던 무덤가에는, 온 여름 동안 키만 자랐던 속새풀 더미가 갈대꽃 같은 솜꽃만을 싸늘한 하늘에 날리고 있다.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 끝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 속의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역센 팔들을 내뻗치고, 새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대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짚는 새파란 하늘과, 산뿔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다.

- 한혹구, 보리 -

한글영문



언어영역

자연미와 예술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화조화는 서양화의 경우와 같이 자연과 꽃과 새가 가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빌려 새로이 예술미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예술에 공통된 조화의 이치에 따라 꽃과 새를 그린다. 그리고 감상자는 자신이 ㉠지닌 한 폭의 화조화(???)를 감상할 때 화조화가 갖는 예술미를 대자연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완상(??)하며, 거기에서 자연의 도(道)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한 폭의 훌륭한 산수화를 방안에 걸어 놓고 무위자연(????)의 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산수, 자연의 경지를 와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화조화에 등장하는 새와 꽃은 새와 꽃 자체라기보다 더욱 광범위한 배후의 자연을 지니고 있는 그 무엇이며, 화면의 꽃과 새는 자연 풍경의 집중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신숙주가 그의 □ 화기(??)□에서 "산수 그림을 통해 자연의 참모습을 뽑아낸다."는 말도 자연의 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지조화의 오묘한 이치를 말할 때 □시경□의 한 구절인 "하늘에서는 솔개가 자연스럽게 날고, 물 속에서는 고기가 뛰논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지만, 이 말은 자연계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터득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인위가 개입되지 않은 스스로의 질성(??)*에 따라 생을 구가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화의(??)를 ㉢지닌 것이 화조화이며, 따라서 화면의 새는 단순한 새이기 전에 대자연의 일부로서 의미를 지니는 상징물로 파악된 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새와 함께 등장하는 화면의 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조화에 등장하고 있는 꽃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꽃나무를 그리는 의도가 그것의 생태를 객관적·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지 않고 새와 다른 개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동(動)의 속성을 ㉣지닌 새와 극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의 상징물로서의 꽃을 그리는 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꽃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합리적 사고는 이 경우에는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소재에 대한 관념과 예술 의욕은 화조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수화 등 모든 동양화에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전시가를 통하여서도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조화를 꽃과 새에서 찾고 있음을 본다. 자연 섭리의 극적인 음(를) 표현하고자 할 때 작가가 한 작품 속에 등장시키려는 꽃과 새의 종류 중에 극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서도 문학적 여운을 배가시킬 수 있는 특정한 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화조화의 꽃과 새는 서로 동과 정,

음과 양의 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선택된 것이라는 점은 시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 질성(??) : 어떤 사물의 타고난 성질

바람 불지 비 올지 눈이 올지 서리 올지
우리는 뜻 모르니 나무랄 줄 모르노라.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백구)야 헌사하랴 못 믿을손 ㉧(도화)로다.
㉧(도화)야 떠나지 마라 ???(어주자) 알까 하노라.

언어영역



언어영역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ㄷ??□?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ㅁ??? · ??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ㄴ??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7??□??
 응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Ca??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ㄱ??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ㄴ?? ·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ㅍ 8 ?' ???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BqL?ㄷ?ㄷ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ㄷ?ㄷ ㅍ??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요. ?나 ㅂ??□ㄱ

- 정약용, 보리타작[???] -

(나)

논밭 갈아 기운 매고 뵈잠방이 다임 쳐 신들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쇠를 뷔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 가서 점심 도슴 부시고 곰방대를
 툯툯 떨어 뉘담배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 저른 소리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 작자 미상 -

(다)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느즌 제
 서주(??)* 놓흔 눈에 잠깐 갠 널비에
 도상무원수(ㄱ????)를 반쯤만 대혀 두고,
 ㉠소 한 적 주마 하고 엄심이 하는 말삼
 친절(??)하다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에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 다든 문(?)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을 양구(?◆)토록 하온 후(?)에
 ㉡어와 기 뉘신고 염치(??) 없산 내옴노라.
 ㉢초경(?Z)도 거원데 기 엇지 와 겨신고.
 연년(ㄹㄹ)에 이러하기 구차(ㄴ ?)한 줄 알건마는
 소 없산 궁가(十 ||)에 혜염 만하 왔삼노라.
 ㉣공으로나 갑시나 주엄즉도 하지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 치(?)*를 옥지읍(???)계* 구워 내고
 갓 이근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갑흘넌고.
 ㉤내일(p?)로 주마 하고 큰 언약(??) 하야거든,
 실약(??)이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 그리하면 혈마 어이할고.
 헌 먼덕 숙여 스고 축 업슨 짚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 저근 형용에 개 지즐 뿐이로다.
 와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을 비겨 안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ㄹ?)은 이 내 한(?)을 도우나다.

- 박인로, 누항사((5)??) -

- * 한기태심(?◆??) : 가뭄이 몹시 심함
- * 서주(??) : 서쪽에 있는 논 두둑
- * 수기 치(?) : 수평
- * 옥지읍(???)계 :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언어영역



언어영역

저명한 철학자 화이트 헤드는 철학을 '관념들의 모험'이라고 하였다. 실로 그렇다. 그러나 어떠한 모험도 위험이 뒤따르며 철학의 모험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는 철학의 모험을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할 때에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을 지적해 보겠다.

일반적으로 적은 지식은 위험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커다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적은 양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커다란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원자 에너지의 파괴적인 위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원자의 비밀을 ㉠ 꿰뚫어 보려고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원자에 대한 지식의 획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와 같이 증대하는 지식이 새로운 난점들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서양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지식의 획득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동굴의 비유'에 의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만 보도록 된 곳에 앉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와 같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등 뒤로는 불이 타오르고, 그 불로 인해 모든 사물은 동굴의 벽에 그림자로 나타날 뿐이다. 혹 동굴 밖의 ㉢ 환한 세상으로 나온 이가 있다면, 자신이 그 동안 기만과 구속의 흐리멍덩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동굴로 돌아가 사람들을 계몽하고자 한다면, 그는 오히려 무지의 장막에 휩싸인 자들에게 불신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깨달음에 가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 입문자들은 실제로 지적(?)으로 도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신의 모험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한 셈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계획된 새로운 내용과 높은 평가 기준이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모르고 있지만, 그들 자신은 자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 든다. 이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인식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사고와 행위 방식을 혼란시킬지도 모르는 모험이며, 학습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하고도 중대한 위험이다. 한 번 문이 열리면 다시 그 문을 닫기란 매우 어렵다. 일반 사람들은 더 큰 방, 더 넓은 인생 공간에 나아가면 대부분 두려움을 느끼며 용기를 잃게 된다. 그러나 몇몇의 뛰어난 입문자들은 사활(?)을 걸어야 하는 도전에 맞서, 위험을 감싸 안으며 흥미로운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성적 도구들을 예리하게 간다.

바다뗏목조난자조류섬을 얼핏 보고 믿음이라는 항구를 향해 힘차게 배를 저어 나아갈 것이다. 또 다른 조난자들은 막막함과 절망의 중심에서 완전히 좌초해 버릴 수도 있다. 뗏목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보증인이 없다. 그러나 뗏목은 늘 거기에 있으며, 이미 뗏목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상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좌절의 늪입니까?
지적 갈증에 허덕이는 자,
진리를 얻고자 갈망하는 자,
저희 '가리사니' 철학 동아리로 오십시오.
우리 동아리에 오면
()으로
진리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언 어 영 표



언어영역

잘못된 외래어 수용 태도는 우리말에 두 가지 방식으로 큰 손상을 주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이미 있던 우리말 어휘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말 어휘와 계층관계를 형성하여 더 품위 있고 고상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가람', '산(?)-뫼', '문(?)-지계', '백(?)-온', '성(?)-жат' 등은 앞쪽의 예이고, '치아(??)-이(빨)', '밀크-우유-소젯' 등은 뒤쪽의 예이다. 이런 식의 외래어 수용 태도 때문에, 고유 어휘는 꼼짝 못하고 죽어가거나 비천한 지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나라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의사 소통력의 확보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그 나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겨우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다른 나라말을 가르치는 학원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으로부터 말을 배우는 예도 가까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말보다 외국말을 더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아예 모국어가 바뀌는 세상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온 겨레가 다른 나라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야 오기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말을 하게 되고 특히 어릴 적부터 다른 나라말의 소리와 어휘 문법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말에 영향을 줄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다른 나라의 어법을 흉내낸 표현이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가올 '다른 나라말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희망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와서 외래어의 남용을 경계하고 고유어를 살려 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잊혀져 가던 우리 옛말을 되살리거나 다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 이미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와 실제 말글살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학술 용어를 포함한 여러 전문 분야의 용어를 고유어 식으로 짓거나 바꾸어 가는 경향은 우리말의 세계를 알차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겨레로 하여금 문화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일상의 말글살이에서 쉽게 아름다운 우리말 어휘를 많이 찾고 만들어 쓰는 등의 일은 흔히 국어 순화 또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일은 일차적으로 새로 필요한 말들을 우리말로 짓고, 나아가 이미 우리말 어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겨레의 입에 익숙해진 상당수 한자어나 새 물건과 함께 들어온 서양말들은 쉽게 제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일본말의 찌꺼기들도 떼어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절실하다는 데에 온 겨레가 뜻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문학과 학자 그리고 언론 매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준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영역

〈앞부분의 줄거리〉

엄동설한에 장끼가 아내 까투리와 함께 자식들을 거느리고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콩 한 알을 발견한다. 굶주린 장끼가 그 콩을 먹으려 하나, 까투리는 먹지 말라고 만류한다.

까투리 하는 말이,

"그 콩 먹고 잘 된단 말은 내 먼저 말하오리다. 잔디 찰방(?) 수망(?)으로 황천 부사(????) 제수(?)하여 청산을 아주 이별하오리니 내 월망은 부디 마소, 고서(???)를 볼 양이면 고집불통(???) 과하다가 패가망신(? || ?) 몇몇인고. 천고(??) 진시황(???)의 몸쓸 고집 부소(??, 진시황의 아들)의 말듣지 않고 민심소동(???) 사십 년에 이세(?) 때에 나라 잃고, 초 패왕(???, 항우)의 어리석은 고집 범중(??)의 말 듣지 않다가 팔천 제자(????) 다 죽이고 무면도강동(?? : ?)하여 자문이사(????)하여 있고, 굴삼려(+?)의 옳은 말도 고집 불청(??)하다가 진무관(??)에 굳이 갇혀 가련 공산(???) 죽은 녀 되어 강상에 우는 새 어복 충혼(????) 부끄럽다. 그대 고집 과하다가 신명(?) 잘못되오리다."

장끼란 놈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가. 고서를 불작시면 콩 태(?)자 든 이 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고(??)적 천황씨(???)는 일만 팔천 세를 살아 있고, 태호 복희씨(?????)는 풍성(?)이 상승(?)하여 십오 대를 전해 있고, 한 태조(???, 유방) 당 태종(???)은 풍진 세계(???) 창업 지주(????) 되었으니 오곡백곡(???) 잡곡(??) 중에 콩 태자가 제일이라. 궁팔십(+?) 강태공(???)은 달팔십(??) 살아 있고, 시중 천자(????) 이태백(???)은 기경상천(???)하여 있고, 북방(??)의 태을성(???)은 별 중에 으뜸이라.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상천(?)해야 태을 선관(???) 되오리라."

까투리 홀로 경황(?)하여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구벽구벽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허뿌리로 드립더 짹 찍으니, 두 고패 동글어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중(???)에 저격시황(? * ?)하다가 버금 수레 맞히는 듯 와지끈 푹푹 푸드득 변통 없이 치였구나.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패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까투리 거동 불작시면, 상하 평전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놓고 당글당글 궁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 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봉성지통(????)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도 불상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낙목천(???)에 울음소리뿐이로다.

까투리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산 야월(???) 두견성(???)은 슬픈 회포 더욱 썩다. 통감(??)에 이르기를, 양약(?)이 고구(???)나 이어병(???)이요, 충언(?)이 역이(?)나 이어행(???)이라 하였으니 자네도 내 말 들었으면 저런 변 당할손가,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부부 좋은 금슬(?) 누구더러 말할소냐, 슬피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못(?) 되고, 한숨은 풍우(?)된다.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이 할고."

장끼 거동 불작시면 차위* 밑에 엎드려서

"예라 이년 요란하다. 후환(?)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이 뉘 있으리, 선(?) 미련 후 실기(???)라 죽는 놈이 탈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를 맥(?)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 보소."

까투리 대답하고 이른 말이,

"비위맥(???)은 끊어지고, 간맥(???)은 서늘하고, 태충맥(???)은 걷어가고, 명맥(???)은 끊겨 가네. 애고 이게 웬일이요.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중략〉

①장끼란 놈 기를 쓴다. 아래 고패 뺨디디고, 위 고패 당기면서 버럭버럭 기를 쓰나 살 길이 전혀 없고 털만 쪽쪽 다 빠지네.

이 때에 차위 임자 탁(?) 침지는 망보다가 만선두리 서피(?) 휘양 우그려 쓰고, 지팡막대 거뒀 쥘고 허위허위 달려들어 장끼를 빼어들고 희희낙낙(???) 춤을 추며,

"지화자 좋을시구 안 남산(???) 벽계수(???)에 물먹으러 네 왔더냐? 뉘 남산 작작 도화(???) 화류차(???)로 네 왔더냐. 탐식물신(????) 모르고서 식욕이 과하기로 콩 하나 먹으려다가 녹수청산(???) 놀던 너를 내 손으로 잡았구나. 산신(?)께 치성하여 네 구족(???)을 다 잡으리라."

장끼의 빗문 혀를 빼어내어 바위 위에 얹어놓고, 합장(?)하여 비는 말이,

"아까 놓은 저 차위에 까투리마저 치어웁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꾸벅꾸벅 절하고, 탁 침지 내려간다.

언어영역

공 통 20

* 차위 : 꿩 잡는 틀

- 작자 미상, 장끼전 -

비단 창문 안에서 얇게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언어영역

